



트렌드 방학 맞은 대학생 알바 변화

단순 '용돈 벌이' 아닌 장래 '경력 쌓기' 투자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용돈이나 학비 마련 등 단순 돈벌이에서 장래 직업에 필요한 이력이나 경력을 쌓는 투자로 개념 자체가 변하는 추세다. 시간당 임금 수준은 더 이상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이 아니다. 대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시간당 임금수준 선택기준 안돼

노동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생으로 선발돼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근무 중인 김정아(여·21·서울 기독교대 2년)씨. 장래 희망이 공무원이라는 김씨는 "공무원 일을 먼저 배워본다는 생각에 지원. 방학 중 고향인 광주로 내려와 일하게 됐다"며 "일도 배우고 임금도 생각보다 많이 받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이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 2천 명이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소년 직장체험연수생으로 뽑혀 현재 전국의 시청·구청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에 30만원을 받는다.

어린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Baby sitter) 파견업체인 '베넷저고리'에서 일하는 김모(여·25·전남대 3년)씨. 김씨는 "하루 3시간 주5일 일하면서 45만 원을 받아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임금이 높은데다 얼마 역할도 간접 경험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시간조절이 가능해 남은 시간 공부도 할 수 있어 주위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은 기본이고 복지나 처우를 중시하는 실속파들

도 많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지점의 경우 지난 2일 아르바이트생 6명을 모집했을 때 무려 400명이 지원, 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영화관 측은 지원자의 80~90%가 대학생이라고 밝혔다. 영화관 아르바이트가 인기가 높은 것은 매점 소 및 매점 근무, 안내 등 업무가 비교적 수월한데다,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에 시간당 4천380원·야간근무 때는 시간당 6천570원으로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달에 8차레나 공짜 영화표가 제공돼 대학생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 CGV 광주나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계열 영화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메가박스 광주지점 운영팀 강익식 매니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경력으로도 인정된다는 점에 많이 찾는 것 같다"며 "복지 혜택 등도 대기업에 맞게 제공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밝혔다.

주유소·세차장·마트 등은 3D

반면 이른바 3D(Dirty·Dangerous·Difficult) 업종으로 분류되는 주유소·세차장·마트 등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육체적으로 힘든데다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시간 근무를 요구해 공부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우리 주유소' 업주 이원희(38)씨는 "5년 전만 해도 구직자의 70~80%가 대학생이었는데 요즘은 10~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인턴기자 ahj@kwangju.co.kr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과 '동부 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어머니회' 회원 270여 명이 19일 오후 충장로에서 '무단횡단 하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는 피켓을 들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완도 명사십리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건설사 대표·포크레인 기사 입건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건축폐기물 불법매립(본보 6월13일 7면)과 관련, 서해해양청은 19일 D 건설사 대표 이모(42)씨와 포크레인 기사 김모(35)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해청은 또 완도군청 감독 공무원 황모(31)씨에 대해서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모씨 등은 지난해 1~4월 완도군이 발주한 명사십리 해수욕장 상수도 및 하수도 관로 사업을 낙찰받아 공

사 중 발생한 건축폐기물 4t을 명사십리 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당시 폐기물 중엔 가로 1m·세로 1m의 콘크리트 덩어리와 음용수대를 교체하면서 버린 가로 1.6m·세로 1.8m 크기의 옛 음용수대 등이 그대로 묻혀 있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 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우럭 치어 대량 불법포획

양식업자 26명 검거 조사

목포해양경찰은 19일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서 조피불락(우럭) 치어 1천만 마리를 잡아 양식한 정모(53)씨 등 흑산도 양식업자 26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 등이 불법으로 포획한 우럭 치어는 5~14cm 크기로 14억여 원(마리당 140원)에 달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치어를 운반선에 넘겨 전남과 경남지역 양식장으로 파는 점조직이 여러 개 있다는 첩보가 있어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나원침 (7266) 김장두



중학교 수업시간에 '음란서생' 상영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한 중학교가 수업시간에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의 성인 영화를 상영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18일 동탄 신도시 S중학교 3학년 2반 3교시 수업 중 담당교사가 성인영화 '음란서생'을 상영, 남녀 학생 40명이 정사장면 등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이 영화를 관람. ○'음란서생'은 지난해 개봉한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주인공이 음란소설을 써서 겪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으며 성(性)에 대한 외설적인 내용과 정사 장면을 담고 있는 영화. ○성인영화를 상영한 L(48) 교사는 "1학기 수업진도가 다 나가 한 학생이 가져온 영화 CD를 틀어준 것"이라고 말했는데, 학교 측은 "담당교사에게 경위서를 받아 교육청에 보고하고 주의를 줬다"고 사과. /연합뉴스

'굿모닝 팝스' 광양출신 이지영씨 '가짜 학·석사' 밝혀져 하차

KBS 라디오 2FM '굿모닝 팝스'의 진행자로 활동 중인 광양 출신 이지영(여·38·사진)씨가 해외 대학 학·석사 학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KBS 라디오 '굿모닝 팝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씨는 그동안 "중학교 3학년 때 영국으로 건너간 뒤 영국 브라이튼대(Univer-

sity of Brighton)를 졸업하고 1996년 언어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는 이력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의 학·석사 학력이 허위임을 시인했다. 광양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이씨는 1990년께 영국에 건너가 런던 남동쪽의 호브(Hove)라는 소도시의 랭귀지 학원에서 1년간 강사 공부를 한 뒤 브라이튼시(市)로 옮겨



기술전문학교를 1년 정도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 편 KBS는 19 일 이지영씨 대신에 이근철 영어강사를 임시 진행자로 내정했다.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한 이근철 강사는 KBS '대한민국 1교시', SBS '영어를 담임교사' 등 방송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1점당 300원짜리 고스톱 도박 아니다"

광주지법 행정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잠시 소액 판돈을 놓고 즐기는 이른바 '심심풀이 고스톱'은 도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A 음식점 주인 정모(31)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북구청은 정씨

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1점당 300원의 고스톱을 친 행위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지위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 ▲시간 등에 비춰볼 때 '일시 오락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음식점 내에서 '도박행위'를 방지했음을 전제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도 부당

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음식점에서 장인의 고향 후배들이 식사를 기다리며 1시간30분 동안 1점에 300원씩을 걸고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고, 북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다. /최원일기자 cki@

